

광주 U대회 유치 결정 D-4

광주 사무국 활동·각오

깜짝 놀랄만한 IT 프레젠테이션 준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개최지가 오는 31일 밤 8시(한국시각 6월1일 새벽 3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에서 결정된다. 개최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U대회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2013광주 하계 U대회 사무국' 직원들의 가슴은 바쁘바쁘 타들어간다.

김윤석 사무총장(광주시 경제부시장), 이기신 사무국장(도시마케팅본

37명 직원 31일 총회 '승리의 시나리오' 짜기 분주 100만인 서명 운동 시민 관심 이끌어내기 견인차

부장)를 비롯한 37명의 직원들은 사무국이 출범한 지난 1월 이후 매일 전쟁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이희범 유치위원장(한국무역협회장)이 세계를 무대로 피말리는 유치활동을 전개했다면 사무국은 U대회 유치를 뒷받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다.

광주시가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는 U대회 유치전략의 열개도 사무국에서 나왔다. 정민근 유치지원부장(마케팅 기획팀장), 유광종 기획총괄부

원장(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발로 뛰어 유치전략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무국 직원들은 국제 행사를 유치에 성공한 여수, 인천의 사례

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여수엑스포와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를 문턱이 닳도록 방문했다고 한다.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 유치 활동, 현지 실사 대비 전략,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 등 U대회 유치전략을 수립, 지금까지 U대회 유치활동을 원활하게 이끌고 있다.

또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5개 자치구 유치지원단을 발대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범시민 유치지원단을 결성하는 한편 100만인 서명운동, 범시민 건강걷기대회 등을 개최해 폭넓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냈다.

특히 지난 5월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는 유치위 사무국의 역량을 200%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대회 개최지 결정의 최대 관문인 현지 실사에서 누구도 상상치 못한 감동적인 환영 물결을 연출했기 때문, 국민에 준하는 영접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 완벽한 프레젠테이션과 스포츠 인프라 등 광주가 가진 장점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다.

현재 사무국은 오는 31일 FISU 총회에서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력한 라이벌인 러시아 카잔의 분위기를 끌어내리고 대회 유치도시로서 광주를 집행위원들에게 선명하게 각인하는 것이 목표다. IT 감각다운 최첨단 프레젠테이션과 전방위 홍보전, 비장의 카드가 프레젠테이션의 아이템이다.

이를 위해 정민근 유치지원부장 등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22일 출국, 벨기에 브뤼셀에 현지 사무국을 차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개최지 결정 어려운 선택될 것”

FISU, 흥피 통해 밝혀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측이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혀 예측불허의 접점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ISU측은 25일 공식 웹사이트(www.fisu.net)를 통해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가 오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FISU 총회에서 결정된다"며 "하지만 대회 개최를 신청한 후보 도시들이 집행위원회에 저마다 자신들의 장점을 강조하며 많은 요구와 압력을 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FISU는 아울러 "개최지 결정 절차는 조지 킬리안 집행위원장의 추진력 아래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SU는 또 지난 4~5일 집행위원들로 구성된 실사단이 광주와 러시아 카잔(Kazan), 스페인 비고(Vigo) 등 3개 후보 도시에 대해 현지 실사를 벌였지만 오는 31

일 총회에서 보고될 실사 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신청 도시들이 아주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고 긍정적인 선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FISU는 덧붙였다. FISU는 이와 함께 2013 하계U대회 유치를 신청한 3개 후보 도시의 역사와 개최 여건 등을 소개했다.

한편 FISU는 오는 31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후 5시)부터 벨기에 브뤼셀의 FISU 본부에서 2013 하계U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스페인 비고(Vigo)→러시아 카잔(Kazan)→광주 등 3개 유치 신청 도시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27명의 집행위원들의 심사와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개최 도시 발표는 같은 날 밤 8시(한국시각 6월1일 새벽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총회에 대비해 22일부터 FISU 본부가 있는 브뤼셀 플라자호텔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지 사무소 관계자는 "광주와 러시아 카잔이 막판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정후식기자 who@



하계 U대회 개최지 결정이 임박한 26일 '2013광주 하계 U대회 사무국' 직원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U대회 유치성공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선택 아닌 필수 2 여름엔 카디건 겨울엔 반팔

“에어컨 적정온도 나부터 실천을”

(26~28도)

휘발유값 2천원으로 상승되는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냉방으로 에너지는 낭비되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가정에서는 에어컨 가동이 한창이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인 26~28도 보다 훨씬 아래인 18도까지 에어컨을 켜놓고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게 다반사다.

주부 김가영(40·광주시 서구 상촌동)씨 가족도 지난 해까지는 여름철 에어컨을 트는데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달 지난달 중순 두 자녀와 약속을 했다. “올 여름에는 매월 17만원씩 나오는 전기요금을 10%씩 줄이자, 이것이 성공하면 5만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후 아이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졌다. 물을 틀어 놓고 양치질을 하거나, 샤워를 10분 이상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수도꼭지를 수시로 잠그고, 샤워 시간도 5분 이하로 줄였다.

북구 문흥동에 사는 주부 이진선(35)씨는 에너지 절약이 몸에 밴 편순이 주부로 통한다. 그가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천하는 것은 전용멀티 탭 사용. 전용멀티 탭을 사용하면 대기 전력이 차단돼 매월 1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이밖에도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도 같이 차단돼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정부가 최근 ‘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 안에는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도~28도, 겨울 20도 이하) 확대, 연비 1등급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냉난방 온도 제한 카드 일반가정 확대 등이 담겨져 있다.

한 여름에도 두꺼운 옷차림으로 생활할 정도의 ‘에너지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을 위한 가정용 패시브를 부과하는 방안은 발표된 지 1주일 만에 ‘지침’으로 대체됐다.

‘여름엔 카디건, 겨울엔 반팔’. 가정에서의 에너지 낭비 습관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같은 낭비벽은 시민 스스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 절약 수칙’을 마련,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연대는 ▲여름철 에어컨 적정온도 섭씨 26~28도 유지(1도 낮출 때 7% 전력 소모) ▲여름철 커튼 설치로 냉방효율 15% 높이기 ▲절전용 멀티 탭 사용으로 연간 142kWh(절약액 2만2천720원) 절약 ▲TV·오디오 등 가전제품 대기전력 사용으로 연간 392kWh(약 6만2천720원) 절약 등을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불필요한 전기 사용은 자제하고 에어컨(49.5㎡ 기준 월 5만8천970원) 보다는 선풍기(49.5㎡ 기준 30대 사용 월 4만4천550원)를 사용, 절수 등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약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에너지 효율 10%만 높이면 年 7조 절감”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을 현재보다 10%만 높여도 연간 7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해외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정책 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에너지 효율을 10% 높이면 지난해 총에너지 수입액(949억 8천만달러)의 7.6%인 72억달러(한화 약 7조5천억원)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량이 줄면서 온실가스 발생도 지금보다 8% 줄어들 수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연구소는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통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특히 “최근 해외 사례를 볼 때 에너지 효율화는 건물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산업 및 운송 부문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상업·가정용 건물 부문에서는 효율화 정도가 낮아 향후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